

<2023년 재일대한기독교회·일본기독교단 평화 메시지>

재일대한기독교회 총회장 나카에 요이치
일본기독교단 총회의장 쿠모시카리 도시미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탈취당한 자를 압박하는 자의 손에서 건지고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거나 학대하지 말며 이 곳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 (예레미야22:3)

신형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ID-19)은 일상의 삶을 흔들며 위험을 끼쳤을 뿐 아니라, 사회 구조나 경제 구조의 약한 부분을 타격하여 모순이나 불평등을 노출시키고 고립과 분단을 증가시켰습니다. 그 불안과 대립이 폭력과 전쟁까지 일으켜 감염증이 수습되어 가는 가운데도 세계는 아직도 큰 혼란 속에 있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십자가를 통하여 적의(敵意)의 담을 헐고 돌을 평화 속에서 하나되게 하였습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야 말로 화해와 평화의 주님인 것을 믿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웃사랑을 마음에 새기고, 이 사랑으로 이루어진 평화만이 이 세상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것이라고 믿고 여기에 평화의 메시지를 선언합니다.

● 관동 대지진 100주년에 대하여

1923년 9월 1일에 관동 대지진이 발생하고 올해 100주년을 맞이합니다. 10만 명이 넘는 귀한 생명이 희생된 것을 잊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지진 재해의 혼란 속에서 “조선인들이 우물에 독약을 넣었다”, “조선인들이 방화를 했다”는 등의 유언비어로 6,000명이 넘는 재일조선인·중국인이 경찰 및 자경단에 의해 학살당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평시에는 보통 일반 시민이 천재지변이 일어나면 이렇게 변하고, 인간이 같은 인간을 죽인다는 광기에 빠져버리는 것에 전율을 느낍니다. 또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죄에 대하여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100년이 지난 지금에도 기류민(寄留民) 외국인에 대한 헤이트 스피치 등의 인권 침해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의 생명을 구속하는 그리스도의 믿음에 근거하여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로마서12:18)의 말씀에 따라, 차별없는 사회가 실현되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위한 사랑의 수고에 참여하기를 원합니다. 긴장과 불안이 가득한 오늘의 상황 속에서 사회적 약자의 입장에 놓인 사람들이 보호를 받고 도움을 받아야 합니다. 사회의 흐름에 동승한 모든 헤이트에 대하여 반대하며, 이 사회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인권이 지켜지기를 바랍니다.

● <입관 난민법(入管難民法)> 개악(改悪)에 대하여

2021년에 폐안이 된 「출입국관리 및 난민인정법(입관난민법)」의 개악안(改悪案)을 일부만 수정한 것이, 올해 5월 9일 중의원에서 가결되고 6월 9일 참의원에서 통과하여 성립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강한 분노로 항의합니다. 정부의 법안은 ‘난민 신청자’ 나, 재류 자격을 잃은 ‘무등록 외국인(비정규 체류자)’를 한층 더 궁지에 몰아넣는 개악법(改悪法)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라면 세계인권선언 및 난민조약에 근거하여 난민인정제도를 근본적으로 개정하고 일본이 이미 가맹하고 있는 국제인권 제반 조약에 따라 입국 관리 수용제도를 개정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개악(改悪)」 입관난민법의 실시에 반대하며, 폐안을 요구하고, 난민신청자나 무등록 외국인 한사람 한사람의 생명과 생활을 지지하는 시민사회의 활동에 연대해 갑니다.

● 우크라이나의 전쟁에 대하여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침공을 당한지 이미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전쟁은 끝날 조짐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사이에도 어린이들을 포함한 귀중한 생명이 빼앗기고 있습니다. “그가 열방 사이에 판단하시며 많은 백성을 판결하시리라. 우리가 그들의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들의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 나라와 저 나라가 다시는 칼을 들고 서로 치지 아니하며 다시는 전쟁을 연습하지 아니하리라.” (이사야 2:4)

한시라도 빨리 전쟁을 중단되고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병사들의 생명이 희생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회 인프라·라이프라인의 복구와 함께 상처입은 사람들의 마음의 케어를 위해서 전세계 교회가 힘을 다하기를 바랍니다.

러시아의 핵에 의한 위협과 사용은 주님 앞에서 결코 용서될 수 없습니다. 모든 위정자들의 양심이 깨어나 사리 사욕과 오만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선택을 하도록 간절히 기도합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전쟁이라고 하는 이름의 대량 살인’ 이 한시라도 빨리 중지될 것과, 그를 위하여 주 하나님께서 역사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 일본의 원자력 정책에 대하여

2011년 도쿄전력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 폭발에서 ‘절대안전’, ‘경제에 필요’라는 ‘신화’로 물들여온 일본의 원자력 정책은 완전히 붕괴되어 12년이 지난 지금도 여전히 사고 수습이 전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신규 원전의 건설과 60년을 넘는 운전을 인정하는 것을 포함한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실현을 위한 기본 방침안’을 정리하여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에서 늘어나는 ALPS 처리수(트리튬 등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지역 주민이나 어업 관계자와의 약속을 무시하고, 또한 인근 국가의 반대의 목소리도 듣지 않고 올해 중에 해양 투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우리 재일대한기독교회와 일본기독교단은 ALPS처리수의 해양투기와 일본정부가 제창하는 ‘기본방침’에 단호히 항의하며, 지금도 피폭에 아픔과 위협을 받고 있는 생명과 연대해 갈 것입니다.

이해란목사

이해란목사 위임식 거행 벧푸교회 개척, 오키나와교회 등 담임



오리오(折尾)교회 창립73주년을 맞이하는 2023년 6월25일에, 작년 10월에 부임한 이해란목사의 위임식이 있었다.

위임식 예배는 사식과 설교 “축복받는 인생” (창세기12:1~5)을 지방회장인 신치선목사가 하고, 사회와 권면을 임시당회장인 김성효목사가 하였다. 이후 이해란목사의 여동생인 이해진목사의 특별 찬양이 있었다.

이번 위임식에는 일본기독교단 북큐슈 지구의 목사와 신도들, 그리고 일본그리스도교회 큐슈총회의 여러분들이 함께 참석하여 축하해 주었다. 54명의 따뜻한 축복 속에 진행된 위임식이었다.

이해란목사는 1956년 한국에서 태어나, 청주사범대학, 감리교협성신학대학원을 졸업하고, 감리교선교사로 일본에 파견되어 2000년에 KCCJ에 가입하고 벧푸교회 개척, 오키나와교회 담임, 지방회목사로 서남지방회에서 전도의 사명을 감당해 왔다.

(보고 : 김성효목사)

평화통일회의 준비위원회 온라인 세미나를 개최

「한반도 정세와 KCCJ의 과제」 테마로

평화통일준비위원회(위원장:김종현목사)의 온라인 세미나가, 2023년 7월 4일(화) 19:00에 가져, 총회의 각 교회로부터 교역자, 장로, 전국교회여성연합회, 모두 46명이 참여했다.

‘정전 70주년을 맞이한 한반도의 정세와 KCCJ의 과제’라는 주제 아래 강사로서는 이은주목사(미국장로교회 세계선교부의 북한담당)를 Zoom에 초대하여 ‘왜 디아스포라인 우리는 분단과 화해에 대해 말할 수 밖에 없는가?’라는 제목으로, (1)정전 70주년을 맞이하는 남북의 상황과, (2)세계교회협의회(WCC, EFK)를 포함한 그리스도교계의 남북평화통일을 위한 움직임 등의 강연을 하였다.

이은주목사는 자신이 6.25동란 때 부모의 피난처인 제주도에서 태어나, 14세 때 부모를 따라 브라질로 향하는 이민선을 탔으며, 또 몇 년 후에는 미국으로 가서 디아스포라로 살아온 경험을 말하면서, 같은 디아스포라로서 오늘의 한반도 남북의 화해와 평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 또 KCCJ는, 남북 교회의 왕래가 없었을 무렵, 동경에서 남북 교회 지도자들의 만남을 가지게 한 경험을 살려, 재일 코리안 그리스도인으로서만 할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고, 정말 힘든 지금의 한반도 상황과 일본, 미국의 상황에서 KCCJ가 할 수 있는 일, 해야 할 일을 추진해 갈 것들을 호소했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

2023년도연수회 리모트로 개최 프라하의교회와 우크라이나 지원 등다

전국교회여성연합회 선교사회국 주최 2023년도 연수회가 7월 1일 토요일 오후 1시부터 리모트로 개최되었다.

이번 연수회는 러시아의 침공으로 체코로 피난한 우크라이나 피난민들을 지원해 온 손신일목사(니시노미야 교회)와 민매라사모가 강연을 맡아 현지의 실태를 배울 귀한 시간이 되었다.

개회예배는 손신일목사가 로마서 11장 16~18절 “주님께 접붙임바 된 자로써 ~공생~”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하였다.

강의 I에서는 손신일목사가 14년 동안 일본어 예배를 담당하던 체코 프라하의 코빌리시 교회의 소개와 유럽의 지정학적 관점에서 프라하의 현황을 설명해 주었다.

강의 II에서 민매라사모가 코빌리시 교회에서의 우크라이나 피난민들과의 교류 등 동영상과 사진을 통해 활동을 소개하였다. 주거와 생활 필수품이 여전히 부족하고 일자리를 구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계속되는 군사 침공의 불안과 앞으로의 문제점들이 있음을 설명해주었다. 앞으로 어떤 지원이 필요한지,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과제는 여전히 남아 있지만, 매우 의미 깊은 연수회가 되었다.

(보고:이호자집사)

全同教会女性連合会 宣教社会局主催
主に接ぎ木された者として
~ともに生きる~
2023年7月1日(土)
13時~15時半
講師:孫信一牧師・閔梅羅師母
チェコ プラハ・コピリシ教会日本語礼拝担当牧師として14年間宣教活動
2023年5月から西宮教会担任牧師
コピリシ教会ではロシアの軍事侵襲によってプラハに避難してきたウクライナ避難民を受け入れ、様々な支援活動を実施。当時の様子、支援活動など、現地の実態、これからの展望をお聞きします。今後どのような支援が必要で、私たちに何ができるのかをともに学びましょう。
ZOOM
ミーティングID: 813 7014 2424
パスワード: 123

전구칠장로

전구칠장로 장립식 거행 2013년부터 동경중앙교회서 봉사



지난 7월9일 주일 오후, 동경중앙교회에서 전구칠장로의 장립식이, 관동지방회 각교회에서 많은 분들이 참석한 가운데 당회장 김신우목사의 사회로 은혜롭게 거행되었다.

예배 설교는 총간사 김병호목사가 “나그네의 영성” (출2:16~22)으로 설교한 후, 관동지방회장 김용소목사의 사식으로 장립식이 진행되어 서약과 안수기도 및 선포로 이어졌다.

이번에 동경중앙교회 시무 장로로 세움을 받은 전구칠장로는 1959년 한국에서 출생하여 대한예수교장로회 금성교회에서 세례, 안수집사가 된 후에 독일하여 2013년부터 동경중앙교회에 출석하여 안수집사로 섬겨왔다.

宣教委員会主催セミナー
ポストコロナ時代の宣教課題について
ポストコロナ時代に変化する宣教的な課題(AI時代、チャットGPTなどを専門家の講演を通して私たちの宣教現場を診断する。時間を設けました皆さんの積極的なご参加を宜しくお願い致します。
IDとPWは追後連絡致します。
対象: 教役者と信徒 締切: 8月17日(木)まで
申込: 書記 李重載牧師 (ljae21@hanmail.net, 090-2045-7388)
お問合せ: 委員長 趙永直牧師 (080-5318-9058)
監理神学大学 教授
地球村牧会研究所 所長
監神宣教訓練センター
責任教授
M-Coaching Center 代表
その他多数
講師: 張聖培牧師
저서: 메타버스 선교로 사역을 확장하라 (2022) 예수님처럼 사역하라 (2018) 우리가 교회다(시즌1.2.3) (공저) 사명을 다하는 교회로 바로 세워라 (2009) 사명 리더십으로 바로 세워라 (2009) 글로벌시대의 교회, 문화, 그리고 사이버스페이스 (2001) 그 외에 공저 및 논문 다수
在日大韓基督教会 宣教委員会

전국 교역자 수양회 개최

현장의소리~나의KCC선교는?라는 테마로

2023년7월17일(월)오후1시부터4시까지 교역자 수양회가 zoom로 개최되어 51명이 참가했다.

수양회의 테마를 정하기 위해, 교육위원회 안에서 여러번 토론을 거듭했다. 포스트 코로나, 교세의 감퇴, KCCJ의 정체성, 목사사제교육, 다양한 배경의 교역자 사이의 관계 문제... 결론은,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것부터 시작하자! 그래서 이번 테마가 정해졌다.

주문홍목사의 개최기도로 시작한 수양회 사회는 이상덕목사가 감당했다. 15분 발제, 15분 질의응답이라는 형식으로 진행된 발제는 4명의 목사가 맡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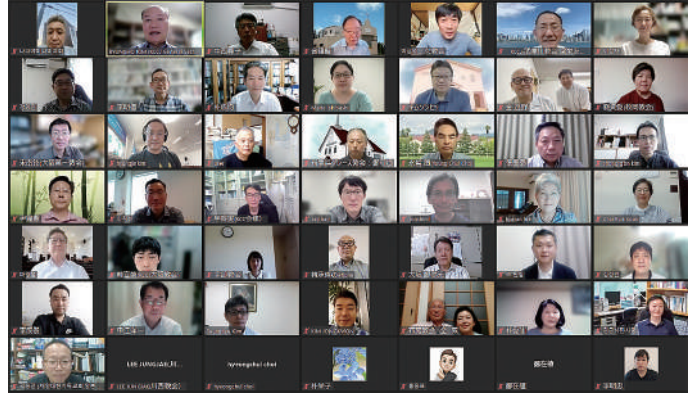
세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어 전개된 조원철목사(미사와)의 이야기, 지역 주민과의 긴밀한 관계를 맺은 채은숙목사(오오가키)의 이야기, 지금까지 부임한 세 교회의 여정을 통해 느낀 주님의 은혜를 회고한 정수환목사(나이하마 그레이스)의 이야기, 농구를 통해서 교회 주변의 10대들이 교회를 섬터로 여기게 된 에피소드를 들려준 광용길목사(오키나와)의 이야기 등, 현장의 목소리

가 생생하게 전달되었다.

발제 직후에 행해진 질의응답 시간에 참석자들은 질문을 하기도 했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

모든 발제자의 발표 및 질의응답이 끝난 후에 자유발언 시간을 통해서 질의응답이 이어지고 감상을 나눈 후, 이명신목사의 폐회기도로 수양회를 마무리했다. 모든 교육위원회 위원과 참석해준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린다.

(교육위원회 이상덕)



광서지방회 이슈람 기도 수양회 개최

대구 CTS 권사합창단과 수요찬양예배도

관서지방회 전도부 주최의 2023년 이슈람 기도 수양회가 <기도와 믿음의 회복> (막 11 : 24)을 주제로 6월 11일(주일) 오후 3시부터 5시까지 오사카 교회에서 개최되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오랜만의 대면 집회로서 95명이 참가했다.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전도부장 조영철목사(오사카 북부교회)의 인사와 기도가 있는 후, 교토교회 청년회 찬양팀이 인도하는 찬양의 시간, 강사인 한승철 목사(교베동부교회)의 [다윗의 기도](삼하 7:18-24)란 제목으로 말씀의 시간이 있었다.

그 후에 강우열목사(나라 교회) 부부에 의한 은혜로운 찬양이 있었고, 히라노마키집사(나니와 교회)와 송승미집사(오사카교회)의 간증의 시간이 있었다.

계속해서 기도의 시간으로 각자의 기도제목을 가지고, 교회도 예배의 회복을 위해(고경미장로, 여성부장), 기도와 신앙의 회복을 위해(이승후목사, 교토시온교회), 화해와 평화의 회복을 위해(신용섭목사, 사회부장) 기도의 시간을 가졌다.

코로나 이후 대면 집회로서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이를 위해 준비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

를 드린다.

또한, 같은 전도부 주최의 행사로서 한국 대구 CTS권사 합창단과 함께 하는 수요 연합찬양예배가 6월 14일(수) 오후 7시부터 오사카 교회에서 드려졌고, 참석자는 124명이었다.

(전도부장 조영철 목사)



<알림>

●총회 사무국은 8월14일(화) ~ 18일(금), 하계 휴가로 업무를 쉽니다.

公告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7回 定期總會 召集

在日大韓基督教会 第57回定期總會を總會憲法第13章(總會)、第60条(定期總會組織)、第61条(定期總會召集)と總會規則第2章(定期總會)、第3章(總代)第3条(總代及び準總代)、に基づいて次のように召集します。

- (1) 標語: 『메마른 땅에 은혜가 샘솟는 교회』(이사야44:3)
「乾いた地に恵みの泉が湧く教会」(イザヤ44:3)

- (2) 日程: 2023年10月8日(主日) 18:00 ~ 10日(火) 17:00

- (3) 会場: 在日大韓基督教会 東京教会 東京都新宿区若宮町24 (☎03-3260-8891)

※「總代・準總代の交通費・宿泊費は各地方会が負担し、女性会・青年会代表はその機関が負担する」(總會規則 第3章第3条4項)

2023年8月1日

在日大韓基督教会 總會長 中江洋一 書記 張慶泰

특별연재 6

1923학살의 기억과 십자가 신앙 (6)

—관동 대지진 조선인 학살 100주년을 맞이하며—

김성제 (일본기독교협의회 총간사)

<6> 「不逞鮮人(후테이센징), 이란 누구인가?

(「不逞鮮人(불령 혹은 불량 조선인)」은 1923년 당시 대 일본제국주의에 따르지 않고 무리를 일으키는 조선인을 가리키는 차별 용어로 한국어로는 적당한 번역어가 없어서 여기에서는 원문대로 「不逞鮮人」으로 합니다.

관동·조선인 대학살이라는 사태와 함께 벌어진 유언비어에서 당시 조선인은 「不逞鮮人」이라고 불렸다. 이 말은 언제 어떻게 태어나 무엇을 의미했는가?

일본은 조선 식민지화를 위해, 조선에서의 일본군에 의한 식민지 전쟁은 1894년부터 제2차 갑오농민전쟁(~1895년 1월)으로 부터 시작되어, 러일 전쟁때의 민중 박해(1904년~1905년), 의병전쟁(1906년~1915년)으로 번져나갔다. 그 당시에는 조선의 식민지화에 반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은 <조선폭도>라고 불렸다. (『조선폭도 토벌지』 조선 주둔군 사령부 1913년).

한국 강제 합병 이듬해인 1911년, 「테라우치 마사히로 총독 암살 계획」이라는 낱조 사건을 다룬 「不逞 사건에서 본 조선인」(國友尚謙) 중에서 「不逞」이라는 말이 조선총독부에 의해 처음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문서에 있어서도 「不逞鮮人」이 아니라 「불량鮮人」이나 「배일鮮人」이라고 불리고 있다. 「不逞鮮人」이 식민지 통치층의 행정용어로 상용되게 된 것은 한반도 북측 국경을 넘은 중국측 간도성(間島省) 훈춘(琿春)에 소재한 일본 영사관이 한반도측에서 피난해 온 독립운동가들 1916년경부터 「不逞鮮人」이라고 호칭하고 독립운동가의 「토벌섭멸」에 임하는 일본군부에 「不逞鮮人」거점의 정보를 전달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在外不逞鮮人 1921년~1925년』所収: 金正柱編 『朝鮮統治史料 第八卷』).

그렇다면, 「不逞(불령, 불량)」라는 말은 어디에서 유래하는가? 『春秋左氏傳 隱公十一年』(中國春秋時代<BC722~BC5世紀>の國, 魯の歴史書)에 曰、天禍許國、鬼神實不逞于許君、而假手于我寡人。借手于我寡德之人以討許, 말하자면, 하늘이許나라에 화를 내리고, 귀신들도許의 왕에게 다가가지 않을 생각을 느낀다. 따라서 동료들 모아許를 토벌하기로 한다) 즉, 원래 「不逞者」란天命을 배반했기 때문에 화(禍)의 벌이 내려져야 할 존재라는 의미를 포함한다. 즉, 이것을 일본의 조선 식민지 통치로 옮기면, 「不逞鮮人」이란, 일본에서의天命인 天皇의 성지(聖旨)를 배반하고,

「문명국 일본」에 조선을 병합해 준 天皇의 은의(恩義)를 배반하는 큰 죄를 범한 존재가 된다. 그러한 이해가 지난호에서 다룬 「교육 칙어」에서의 「나라에 중대한 사변이 일어나면 국민은 정의와 용기를 가지고 나라의 이익을 위해 한 몸을 바치자」와 연결되어, 관동 대지진때에 폭동을 일으킨 「不逞鮮人」을 군대·관련·재향군인회·자경단이 적으로 여겨 토벌·섬멸하는 것은 국가의 대의라고, 가해자의 정신구조 속에서 정당화되어 갔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관동 대지진의 정확히 1년 전의 9월, 프롤레타리아 문학자 中西伊之助(나카니시 이노스케)는 소설 『不逞鮮人』을 잡지 『改造』 9월호에 게재했다. 내용은 자칭 「世界主義者」의 주인공 「確井榮策」(가즈이 에이사쿠)가 조선 서북 지방의 「不逞鮮人 소굴」을 찾는 이야기. 거기서 만난 것은, 에이사쿠의 상상에 반대하여 1919년 「경성」에서 31운동으로 살해된 딸의 피로 더럽혀진 차마 저고리를 안고 울고 있는 주인이었다. 십야, 에이사쿠의 침실에 들어오는 죽은 딸의 아버지 주인의 기색에 에이사쿠와 잠자리에서 「복수」의 공포에 떠다. 견딜수 없어 집 밖으로 뛰쳐나왔는데, 부엉이 울음소리 같은 목소리로 「不逞鮮人」의 습격한다는 외침이 들림었다. 전을 그 때 집안에서 나온 주인의 소리 「변소, 어딘지 모르겠습니까?」. 에이사쿠는 마침내 알게되었다. 「不逞鮮人」은 어디에 있었는가? 그것은 자기 자신의 의심 속에 있었고 「모든 것은 자신들 민족이 저야 할 죄」라는 고백 같은 생각에 빠져 소설은 끝난다.

中西伊之助(나카니시 이노스케)는 관동대학살 1년 전에 「不逞鮮人」이란 조선민족의 철저한 황민화를 목표로 하는 대일본제국의 자화상이었음을 암묵적으로 지적했다. 지금 「不逞鮮人」은 일본 사회에서 명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그 안에 숨겨진 적의·멸시·공포심 등이 과연 이 일본에서 사라졌다고 할 수 있을까? 지금 우리는 「새로운 戰前」이라고도 불리는 이 일본의 대군확화(大軍拡化) 시대라고 묻지 않을 수 없다.

거라사의 남자는 예수 앞에서 자신을 「레기온(군대)」이라고 자칭하면서 자신들을 이 지방에서 쫓아내지 않도록 예수께 간청하고 돼지의 무리를 폭주시킨 악령(마가복음 510)처럼 「不逞鮮人」표상은 대학살 속에서 악령처럼 군대·관련·자경단에 휩싸여 재일조선인에 대해 대살육을 일으켰다. 이 「不逞鮮人」이라는 파괴적 자화상의 역사에 100년이 지난 지금도 성실하게 마주하지 않고 묻지도 않고 침묵을 계속하는 가운데 이 나라의 또 다른 심각한 비극이 있는 것은 아닐까?

不逞鮮人一千名と
横濱で戦闘開始
更に麻生聯隊から一個中隊を派遣
歩兵一個小隊全滅か

仙臺電話日二日午後五時より大森方面より約四百名の不逞鮮人横濱に現れれ隊伍を組んで東京方面に向ひ進行し來り遂に歩兵一個小隊と衝突し彼我の間に戦闘を開始したが一個小隊にては少ないので苦戦の結果全滅の兆ある旨麻布第三聯隊に報じて來たので更に歩兵一個中隊を派遣した其後の情報はまだないが鮮人の數は約一千名と稱せられて居る

鮮人の隠謀
震害に乗じて放火
東京に三千名集り
連掃は頗る困難

發電所を襲ふ
鮮人團
避難民
不忍の泥水を飲む
避難民
積極的救助策を講ず

避難民に開放された宮城

好商一掃の爲無貨輸送

任命
某役司令官